



유한대학교 미래 교육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기반 평생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2019년 4월, 학교법인 유한학원은 이사회를 통해 제7대 김현중 총장을 선임하였다. 이후 7월 1일 김현중 총장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김현중 총장은 유한대학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선출된 내부 총장으로서 1995년 유한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로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장, LINC사업단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해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면서 현재 대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학년도에는 정원대비 약 12.4만 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 강화 등 전문대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유한대학보는 전문대학의 미래를 재정립해야 할 새로운 변곡점에서 신입 총장으로서의 각오와 그가 구상하는 유한대학교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Q :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유한대학교 제 7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총장 임기를 수행하신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취임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첫 반년간은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임 총장 시절에도 여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학 경영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유한대학의 시스템 및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경영의 책임자로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학 전 구성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총장으로서의 인품을 더욱 가다듬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총장님께서서는 유한대학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선출되신 내부 출신 총장이십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 유한대학 총장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전문대학은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공지능, IoT, 가상현실 등을 무장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는 교육에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학자원 고갈과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으로 각 전문대학들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물론 존립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한대학교는 지금껏 잘해왔듯이 이러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직업교육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RUST 교육 4.0 플랫폼, 스마트 러닝 팩토리, 산학협력 혁신, 지자체와 상생하는 지역기반 산업 감점 분야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선도대학 도약 등 우리 대학은 미래 고등교육 청사진을 그리는 혁신의 주체로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학은 지난 8년 동안 전임 이권현 총장님의 지휘 아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몸소 겪어 온 저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Q : 총장님께서서는 취임사에서 ‘지역기반 평생 직업교육 선도대학’을 새로운 대학의 목표로 제안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대학혁신 지원방안 중 하나로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우리 사회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성인의 직업 재교육, 이·전직 교육 등 고등직업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



유한대학교 제7대 김현중 총장

다. 또한, 취업난에 따른 일반대학 졸업자, 고졸 취업자 등의 전문대학 진학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학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문대학의 입학생은 점차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사에서 밝힌 유한대학의 새로운 목표가 ‘미래의 교육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기반 평생 직업교육 선도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대학교는 이미 이를 위한 초석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대학교는 한국복지대학교와의 컨소시엄으로 수도권 43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만이 뽑힌 ‘후진학선도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모든 시스템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대학보다 한 발 앞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한대학은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기반으로 경력전환 희망자, 경력단절여성, 재직자 재교육, 만학도, 다문화가정 등 어떤 형태의 성인학습자도 포용하는 지역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환경, 학습시설, 장비 등 하드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조직, 제도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부가 전문대학 혁신방안으로 밝힌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석사과정까지 가능)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가칭) 마이스터대학’ 운영대학 선정을 위해서도 대학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Q : 총장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역량기반

교육’을 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새로운 역량기반 교육은 무엇인가요?

A : 유한대학교는 대학의 인재상인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역량 T(Trustworthy 유한인성역량), R(Ready 기초학습역량), U(Useful 직업기초역량), S(Specialized 직무역량), T(Tested 취·창업기초역량)를 정했습니다. 5개 역량은 다시 17개의 하위역량과 55개 세부역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한대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앞서 2015년에 TRUST 역량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핵심역량과 융합된 융·복합 교과목을 설계해 역량기반의 한 축으로 창의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과에서 프로젝트형 수업인 PBL(프로젝트 기반학습)과 플립드러닝(FL)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과에 IT를 융합한 교과목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타학과 전공을 ‘개방형’ ‘선택형’ ‘지정형’ 복합교과 형태로 일반선택 학점이 아닌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Q : 아무래도 학생들이 총장님께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취업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총장님께서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A : 저는 초대 취·창업지원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 누구보다도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고충과 고민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취업의 질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가장 고민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학생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일련의 교육과 더불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좀 더 질 좋은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바로 가족회사의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전공 관련 기업 중 내실 있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가족기업을 재 선별하여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일하기 좋은 다양한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앞서 취업관련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사회 환경과 맞물려 3포 세대, 5포 세대,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수 자를 정할 수 없다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총장이기에 앞서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양한 도전과 연애도 해보는 등 청춘을 지닌 젊은이로서 끊임없이 부딪혀 보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것은 젊음이 지닌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떤 경험과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음은 실수하거나 잠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여러분들을 한층 더 단단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다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면에 계속》

지 면 안 내	〈사설〉 미래는 희망이요, 새로운 기회다 2	‘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유한문화상〉 시, 수필, 사진부문 당선작 6~7
	〈학내기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2	〈취업시리즈〉 거울병학을 활용한 취업 스펙 UP 4	〈인터뷰〉 PBL 기반 학습법 대상 수상팀 8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임원진 구성 2	〈유한인의 마음 채움〉 잠시만, 좀 설겜요 4	〈알밤〉 향수 공방 8
	2020학년도 수시 2차, 정시 모집 원서접수 완료 2	〈유한인평〉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무색 4	〈유한이〉 취업준비는 집카페에서 8
	전문대학 평가 청원부문 최우수 대학 선정 3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효 3		
	재학생 인성함양, 직업기초능력 향상 캠프 개최 3		

학 내 일 정

1학기 강의시간표 발표
▶ 1월 31일

1학기 수강신청
▶ 2월 3일 ~ 2월 6일

1학기 개강
▶ 3월 2일(1학년)
▶ 3월 9일(2·3학년)

유한대학교 사명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유한대학교 비전

사람 · 기술 · 산업 연계로
쓰임의 가치를 창출하는
실무중심대학

사설

미래는 희망이요,
새로운 기회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섣뚱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새해가 다가왔다.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교육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 학령 인구의 감소는 절체절명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차별화하고 입학하려는 자원을 충분하게 확보 할 수 있느냐가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우리 대학은 미래를 위해 그 동안 전 구성원이 함께 준비하여 왔다고 생각 한다. 열심히 준비하여 결과를 내었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한다.

매해 새로운 학생이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아간다. 우리는 학교일에 각자 자신의 소임을 갖고 임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 환경도 변하고 그 사이에서 관계하는 사람도 변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삶이요, 생활이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직의 구성원으로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는 불확실하고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는 불확실하고 아무도 모른다. 그저 다가오면 부딪히고 맞서고 살아갈 뿐이다.

2019년 우리 대학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시험대에 오른 한 해가 되었다. 그 시발점으로 교내 총장이 취임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불확실한 미래를 투명하고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대학 본부 경영자들은 구성원들의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고 대학 경영의 비전과 목표를 늘 공유하고 방향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겠다는 신임 총장의 취임사처럼 실제로 그렇게 행해져서 경영에서 소외당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불만인 조직원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자기주도적인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조직 내에서의 분위기 또는 상사의 생각과 철학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끌려 나가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환경은 모두에게 불행한 삶이라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의견을 희생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분명한 원칙과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조직 운영을 해야 전체 구성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보람된 조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전 구성원이 일체 단결하고 협동하면서 각자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 희망이 될 것이다.

준비된 자 두려움이 없나니 미래는 희망이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은혜다. 삶이 충만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서로 동참하고 보람을 찾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 사설에 기고된 주제와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임원진 구성

제5대 학생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강선(산업공학과, 1))와 35대 대의원회(의장 : 이정우(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2))는 2020학년도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각각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학생자치위원회는 윤강선 학생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재운(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호텔관광전공, 1) 부위원장/기획부장, 최연지(보건복지학과, 2) 총무부장, 김예진(i-패션디자인학과, 1) 활동부장, 조원휘(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외식조리경영전공, 1) 사회체육부장, 유가현(기계공학과 기계설계전공, 1) 문화

복지부장, 전자연(테크노산업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1) 2부/여학생부장이 선출되었다.

35대 차기 대의원회는 이정우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예림(U-보건의료행정학과, 1) 부의장, 김란서(경영학과 항공경영전공, 1) 총무부장, 유영주(스마트콘텐츠학과 모바일엔터테인먼트전공, 1) 감사부장, 이다영(기계과 기계설계전공, 1) 기획부장, 노희송(아동보육학과, 1) 연대홍보부장, 박민우(전기공학과, 1) 문화복지부장이 선출되었다.

〈정민지 기자〉



〈1면에 이어〉

Q : 총장님께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것과 동시에 보직교수로서도 학교에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요. 유한대학에 재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한 기억은 언제나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1995년도 유한대학교에 부임했던 시절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신입 교수로서 강의와는 별개로 학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교과·외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잊고져 일처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총장이 된 지금도 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자주 다짐하고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과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유한대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유한대학교를 졸업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가 아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번 들어오



①② 김현중 총장이 유한대학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③ 김현중 총장은 유한대학의 새로운 목표로 '미래의 교육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기반 평생 직업교육 선도대학'을 제시하였다.

셨겠지만 유한대학은 유일한 박사님의 정직·성실·나눔의 정신을 받들어 세워진 대학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업인으로 손꼽히지만 정작 박사님은 교육자로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하셨습니. 유한학원 부지 내에 박사님의 묘소가 있는 것도 '학생들의 맑은 정신과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 느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유언 때문입니다. 박사님이 얼마나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교육과정, 봉사활동, 교과 외 활동, 유일한기념관 운영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유일한 박사님의 고귀한 정신이 학생 여러분들의 캠퍼스 생활 동안 자연스럽게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박사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회의 각 부문에서 '유한대학교 졸업생은 성실하다', '유한대학교 졸업생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모교를 빛내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학의 전 구성원들도 학생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진·글 : 김대성 기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유한대학교 재학생들이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돼 2022년 12월 23일까지 3년 간 인증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진로체험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는 2016년부터 교육

기부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자격을 유지해 왔으며 매년 2,000명 이상 중·고등학생 진로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중 총장은 "우리 대학은 유일한 박사님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유한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중심대학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여,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현판을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지며,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진로체험망 '꿈길' 누리집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2020학년도 수시 2차, 정시 모집 신입생 원서접수 완료
정원 내 경쟁률 각각 10.7대 1과 14.3대 1 기록해

우리대학은 작년 1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인터넷과 창구접수를 통해 2020학년도 수시 2차 및 정시모집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수시 2차 모집 결과 총 6,630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정원 내)은 10.7대 1을 기록했다. 모집 결과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과는 아동보육학과(특성화고전 형)로 4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각디자인학과(특성화고 전형)와 애니메이션학과(특성화고 전형)가 각각 30.3대 1과 29.5대 1로 뒤를 이었다.

정시 모집은 총 4,761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정원 내)은 14.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과는 IT소프트웨어공학과(수능 전형)로 3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수능 전형)과 시각디자인학과(수능 전형)가 각각 26.7대 1과 23.4대 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신입생 모집은 정원 내 전형과 함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재직자 전형 등 다양한 정원 외 특별전형도 적용해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수시모집의 미등록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했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여러 대학에 합격한 경우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입학·학생처 입학·학생복지팀 관계자는 "우리 대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2월 학위수여식 방문, 연이은 정부사업 선정, 수험생을 대상으로 연중 꾸준한 입시 홍보 등이 어우러져 대학의 이미지와 위상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신입생 모집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더욱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합격자의 최종 등록기간은 2월 6일(목)부터 2월 10일(월)까지이다(수시·정시모집 동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입시홈페이지 및 입학·학생처 입학·학생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http://sky.yuhan.ac.kr>), 전화 02)2610-0624-25

〈정민지 기자〉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효

제5대 학생자치위원회가 2020학년도 학생 대표기구로 활동하게 돼



유진수(메카트로닉스학부 전기공학과, 1) 총학생회장 후보와 김예정(지식서비스학부 경영학과 항공 경영전공, 1)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학년도 유한대학교 제3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11월 7일 목요일 나눔의 숲(농구장)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최종 무효 처리되었다. 그 결과 단일 후보로 나온 유진수(전기공학과, 1) 총학생회장 후보와 김예정(경영학과 항공경영전공, 1)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개표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선거에 낙선했다.

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 제20조 당선자 결정에 따르면 “당선자는 재학생 과반수 이상 무기명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 출마 시 찬, 반 투표를 실시하며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투표율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되기 위한 최소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이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7.6%가 나옴에 따라 당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깨끗한 소통, 편안한 복지, 즐거운 행사를 내세웠다. 첫 번째 깨끗한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SNS 개설, 신문고를 통한 대자보 실시, 공청회 실시 등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안한 복지를 위해서 출석기준 완화, 학식메뉴 다양화를 내세웠으며, 즐거운 행사를 위해 대동제 학생 의견 적극 반영, 홈커밍데이 보완, 동아리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선거 유세 및 11월 5일 공청회 등 활발한 유세활동을 펼쳤으니 끝내 학생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2020학년도 총학생회가 선출되지 못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5일 학생대표 자회의를 거쳐 '제5대 학생자치위원회(위원장 윤강선(산업공학과 1), 부위원장 박재윤(호텔관광·외식조리학)과 호텔관광전공, 1)'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

〈사진·글 : 조하영 기자〉

재학생 인성함양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 개최돼



학생들이 인성함양 프로그램(인성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29일 및 11월 5일·6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기초능력 향상 캠프'와 '인성함양 프로그램(인성캠프)'가 각각 개최되었다. '직업기초능력 향상 캠프'는 재학생들의 직업기초 역량 성취도 증대를 위해, '인성함양 프로그램(인성캠프)'는 재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배양하고 기업에

생자치위원회는 2015학년도 30대 총학생회 이후 5년 연속 학생 대표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총학생회 투표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은 선거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 아쉽다”, “동료 학생들이 학교일에 많이 무관심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아래는 이번 선거를 진행한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 이도희 위원장(IT소프트웨어공학과, 3)과의 일문 일답이다.

이번 총학생회 투표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은 선거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 아쉽다”, “동료 학생들이 학교일에 많이 무관심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아래는 이번 선거를 진행한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 이도희 위원장(IT소프트웨어공학과, 3)과의 일문 일답이다.

Q. 이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A.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전에 회의 통해 학생회 선거 규정 제 20조 규정에 따라, 유한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기록을 확인하였고, 2012학년도 제27대 총학생회 투표 결과 73%의 투표율이 확인되었기에 단일 후보일 경우 70%의 투표율로 결의하였습니다.

Q. 이번 투표율이 17.2%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매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지원을 받았으나, 2015학년도 제30대 총학생회를 끝으로 총학생회를 지원한 후보자가 없어 4년 동안 학생자치위원회가 학교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유한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총학생회 선거가 다소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우분들께 좀 더 총학생회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Q. 앞으로 총학생회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역할로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대표기구가 무엇이 있는지, 그 대표기구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업무를 담당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학우분들이 대표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활발히 활동하며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도 학업 등으로 대학생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전자신문 전문대학 평가에서 창업부문 최우수 대학 선정

우리대학교는 지난 12월 전자신문이 발표한 2019년 전문대학 평가에서 창업부문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자신문이 이티에듀 등 교육·컨설팅기관과 13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문대학별 특성화 분야의 비교우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분야별 평가에 우선순위를 뒀으며, 각 지표의 결과값은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했다. 이중 창업 부문은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학생 창업 △교원 창업 △산업교원

△신기술 창업 △창업활동 지원을 지표로 평가했다.

우리대학교는 학생창업자 수에서 29명으로 전체 전문대학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전문대학의 평균 학생창업자 수가 2명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 부문에서 타 대학과의 차별성이 눈에 띈다. 또한 창업에 성공한 업체 수도 13개에 달해 전체 전문대학 중 네 번째로 많았다. 산업교원 수는 42명, 창업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창업활동 참여인원은 504명으로 두 항목 모두 상위 20%에 속해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성 기자〉

우리대학교 ‘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해안권역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목표



3D프린팅 활용 및 교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Ⅲ유형) 선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후진학선도형 혁신지원사업은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유한대와 한국복지대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평등학습 Commuversity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한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사업 선정이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14일 후진학선도형 컨소시엄 혁신지원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우리 대학교는 2학기부터 △유튜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창업 강좌 △가죽공예를 활용한 DTP 프린팅 패션제품 제작 강좌 △3D 프린팅 활용 교강사 양성 강좌 △생산업제 기술자동화(PLC)프로그램 등 12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강좌들은 전액 무료로 진행 중이며, 다문화·탈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기초에서 실무까지 체계적인 현장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최첨단 교육 시설과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멀티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중

이다.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생들의 창업 및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수강생의 90% 이상이 수료하고 있다.

3D프린팅 활용 및 교강사 양성 강좌를 수료한 김인호(66세)씨는 “3D프린팅을 배우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수업을 접하게되어 3D프린팅이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며 “더 지속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유한대학교 후진학선도형 무료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3D 프린팅 활용 교강사 양성 강좌 수강생들은 3D 프린팅을 활용해 저금통 및 어린이용 자동차 완구 등을 만들어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증했으며, 가죽공예를 활용한 DTP 프린팅 패션제품 제작 강좌 수강생들은 가죽공예를 하면서 만든 동전지갑, 여권지갑, 팔찌 등 가죽공예 작품을 1개씩 더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창업 강좌를 수강한 이미선 노래교실 강사는 유한대학교 음악동아리인 엠비션, 음악인동우회 학생들에게 일일 노래교실 강사로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이미선 강사는 내가 무엇으로 나눔을 되갚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방법은 02)2610-0343, 0348, 0349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글 : 최지혜 기자〉

으로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성장과정 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데뷔 이후에도 틈틈이 그림 연습을 한 결과, 태국 파타야 패러디아트 박물관에 그래피티(페인트로 벽에 글과 그림을 남기는 것) 8점을 남겼고, 대한적십자사 홍보를 위해 그래피티 아트 퍼포먼스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추구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면서, “그러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에 참여한 배지훈(산업공학과, 2) 학생은 “유명하신 분이 직접 와서 강연해주니 더욱 재미있었다”면서, “특히, 팝핀현준의 춤에 대한 ‘미친’ 열정을 듣고 나도 좋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해보아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강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인성함양 프로그램(인성캠프)’는 폐소생물(CPR)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 사회진출을 위한 올바른 인성 및 예절, 함께하는 소통과 대인관계의 인성함양 기술, 대학생 폭력 예방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된다. ‘사회진출을 위한 올바른 인성 및 예절’에서는 인성의 개념 및 인성교육 목적 이해와 대학 생활 및 사회 진출을 위한

인성 전략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함께하는 소통과 대인관계의 인성함양 기술’에서는 나와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기술과 대인관계를 위한 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교육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는 블라인드 체험(시각장애인 되어보기)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 대해 교육하였다. 5개 프로그램을 이후 만족도 조사와 수료식을 끝으로 캠프 일정이 종료되었다.

강지윤(아동보육학과, 1) 학생은 “이번 인성캠프는 신입생 특강 때보다 더 유익하면서도 재미있었다”라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무엇보다 강사 분들이 강단 위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내려와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요즘 채용시장의 가장 주요한 화두는 바로 직업기초능력과 인성·리더십이 균형잡혀 있는 인재다”라며, 다양한 학습내용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사진·글 : 김대성, 권주연, 원예선 기자〉

취업시리즈

겨울방학을 활용한
취업 스펙 UP!

최슬기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 취업상담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계획부터 대학생이면 한번쯤 꿈꿔왔던 배낭여행 등의 다양한 계획들을 실천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방학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취업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짧지 않은 방학 기간이 단순히 자기계발뿐 아니라, 향후 취업전선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스펙에 도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1. 자격증 탐색과 학습의 시간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전문성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격증의 범위는 분야에 따라 매우 넓으므로 자신의 전공 또는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관련한 기술자격증 취득이 중요합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OA자격증은 직무 무관하게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뉘는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신력 높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

2. 2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외활동

대외활동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모임에서,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의 실무경험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입니다. '화장품 체험단'처럼 자신의 취미나 관심 분야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00브랜드 대학생 기자단', '4차 산업혁명 서포터즈' 등 전공과 관련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도 있습니다. 소정의 상품이나 활동비 등은 덤이며 대외활동 SNS활동기록은 차별화 된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합니다.

3. 공모전, 상금과 취업 1석 2조

대외활동과 마찬가지로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디자인 △영상 △네이밍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공모전에 지원하면 그 자체만으로 스펙이 될 수 있고 입상하면 상금으로 짭짤한 부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물론, 인턴십 기회나 입사 서류전형 면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공모전 대표사이트 씽긋(<https://www.thinkcontest.com>)에서 접수기간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원하는 분야를 찾아 신청해 보세요.

4. 공인어학성적

공인어학성적이 취업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직무 분야나 기업규모에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단기간에 원하는 성적을 얻기 힘들어 시간이 많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작정 혼자 파고들려는 생각보다 유명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이루어 공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스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취업시장의 변화 속에서 '직무적합성'이 주요 평가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순히 다른 지원자 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역량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다양한 스펙을 쌓는데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지원하는 직무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스펙 한방을 갖추는 유한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한인의 마음채움

잠시만, 좀 쉴게요.

정지혜 (학생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사)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나요? "정말 잘 쉬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운하게 쉬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몸과 마음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소모한 이후 충분한 쉬이 필요합니다. 쉬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잠을 청하곤 합니다. 몸이 쉬면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물론 피로가 풀리면 기분도 좋아지기 마련이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종일 침대에 누워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마음속이 복잡해서 쉬지 못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딱히 몸이 피곤할 일은 없지만 취업이나 학점 걱정, 친구관계 고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다양한 염려, 가족간의 갈등, 외로움이나 우울함 등의 흐린 기분들로 지치고 스트레스 받은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런 날은 몸의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음이 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상담 분야는 마음의 문제에 뇌과학을 접목하면서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또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마음 챙김은 뇌의 휴식을 통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뇌 이야기가 나와서 어리둥절한 분들을 위해, 약간의 부연설명을 덧붙입니다. 뇌 과학 연구자들은 뇌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지적 활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뇌의 특정 영역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는 우리 전체 에너지 중 약 20퍼센트를 사용하는데, 이 특정 영역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무려 60~80퍼센트까지 소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마치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앱을 켜두면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제자리에 공회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거와 미래 어디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잡념들로 우울하고 불안해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뇌가 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이 영역에 적절한 쉬 없이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점점 지치고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반대로 뇌가 낭비를 멈추고 충분히 쉬고 나면 진짜 휴식을 취한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뇌는 도대체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감각, 생각, 감정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용한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면, 요새 날 짜증나게 하는 그 친구나

밥 먹은 후 할 일이나 과거 창피했던 어느 순간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뇌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의 이 밥알과 반찬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맛을 느껴졌지 말고 느껴보자. 무슨 맛이지? 혀 안에 씹히는 감촉은 어떻고 목 넘김의 감각은 어떻게?' 현재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은 호흡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 없이 매순간 반복하는 호흡을 알아차려본 적이 있나요?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코털과 콧속 피부를 건드리며 내 안으로 들어와 시원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공기가 폐까지 흘러 들어오면 배의 근육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고, 들숨과 날숨 사이 찰나에는 멈추는 틈이 있으며, 숨을 내릴 때 내 배는 다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앉거나 누워서 몸을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5초 정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10초 이상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뿔으면서 제가 앞서 묘사한 것처럼 호흡을 알아차려 보세요. 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5분 이상 시도해보세요. 잡념이 들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지금 다른 생각이 들었구나?'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지만 반복하다보면 내가 더 편안해지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결과들도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지요. 내게 진짜 쉬를 주기 위해 매일 웹툰 한두 편 보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니, 해 볼만 하죠?

이번 2019년 2학기,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지쳐가는 학생들과 함께 쉬를 누리고 싶어 마음 챙김 명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용기내서 신청한 유한대 학생들과 함께 호흡도 명상하고 소리도 명상하고 음식도 명상하면서 실제로 마음의 휴식을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참여 학생들의 실제 후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깊게 고민하며 더 스트레스 받곤 했는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현재 상황에 집중할 수 있었다(소나기).",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었지만, 피드백도 듣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자유).", "처음에 무섭기도 하고 아무 말 못하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생각 외로 훨씬 편안하고 재밌었다(뽕또).", "걱정이 많고 불안했는데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았고 의욕이 높아졌다. 걱정이 사라지는 방법을 연습할 때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다(햇빛).", "평소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과 편안히 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거북이).", "불안을 다스리는데 도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위로가 되는 힐링의 시간이었다(나무늘보)."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휴식에 관심이 생긴 분들, 다음 학기 집단상담 시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만/평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무색

(배소운, 애니메이션학과 2)



유한인의 마음채움

Healing Café

유한인의 마음채움

학생심리상담센터 Healing Café가 여러분 곁에 늘 있습니다.

학생심리상담센터는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생활과 적응을 돕습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하세요.

학생심리상담센터 이용절차

<이용방법>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전화/방문 예약접수 → 접수면접 → 심리검사 → 개인 or 학생상담

· 집단상담
집단상담 일정은 추후 학교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확진 후 전화 / 방문예약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방문 즉시 신청서 작성(나눔 1층) → 상담시간 예약 → 상담시작

<전화신청>

- 전화접수 후 상담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상담시간 예약 → 상담시작
-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이용시간>

- 학기중 09:00~18:00
- 방학중 09:00~17:00
- 문의전화 ☎ 02-2610-0396-0398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10명 내외로 함께 모여 서로의 성장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럴 때 신청하세요!

-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 대인관계 증진**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다.
- 자가성찰**
나의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
- 자기표현 증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게 힘들다.
- 미술치료**
심리적인 어려움을 미술을 통해 도움 받고 싶다.

※ 실시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학내단신

재창업패키지 교육기관 A등급 수상



우리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재창업패키지 교육기관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했다. 또한 '2019년 재창업패키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엄준우(멀티드론스쿨) 대표가 대상, 최진영(초이스초이스) 대표가 우수상, 전부민(쓰리디토피아) 대표와 이한영(한미디어) 대표가 장려상을 수상하며 참여자 4명 전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년 재창업패키지 교육기관으로 '드론 판매수리점 창업과정', '3D프린팅서비스 유지보수 전문점 창업과정', '플랫폼 입점형 스마트스토어 창업과정' 등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251명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3D프린팅금형공학과, 대학생 금형 3차원 CAD기술경진대회 은상 수상



3D프린팅금형공학과는 '2019년 제16회 대학생 금형 3차원 CAD기술 경진대회'에서 2명이 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학회 등 정부부처를 포함한 6개 유관단체가 후원하고 국내 금형, 기계부문 4년제를 포함한 전국대학교에서 선발된 대학생 15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대학교는 사출금형 부문, 프레스금형 부문 등 2개 부문에 참가해 강현호(3D프린팅금형공학과, 2), 김규성(3D프린팅금형공학과, 2) 학생이 사출금형 은상, 프레스금형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진행돼



12월 26일 우리대학교 학생, 교직원 40여명이 소외 계층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2,500장을 직접 다 배달했다. 연탄 나눔을 처음 경험해본 윤강선(산업공학과, 1) 학생은 “연탄 몇 장 배달로 봉사한다는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느꼈다”며, “연탄이 지역 이웃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패션디자인학과, 2019년 패션쇼 진행해



지난 11월 28일, 유일한기념홀에서 i-패션디자인과가 2019년 패션쇼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옷을 제작하고, 제작한 옷을 직접 무대에 올리며 솜씨를 뽐내는 자리로, 재학생, 학부모 및 가족, 친구 등 많은 관람객들이 패션쇼를 참관했다. 디자이너로서 이번 패션쇼에 참가한 윤세민(i-패션디자인학과, 3) 학생은 “이번 패션쇼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무대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했다”면서, “처음 작품을 제작하고 모델들이 정해진 후 재작업이 진행됐던 터라 계속된 작품 수정에 힘들었지만 잘 마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창업동아리 전시회 및 창업경진대회 열려



지난 10월 유일한기념관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19 창업동아리 전시회 및 창업경진대회'가 열렸다. 창업경진대회는 교내에 창업분위기 활성화와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이디어 분야와 시제품 분야에 총 25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평가는 창의성, 발전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부분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 등 12개 팀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총 1,0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진행



LINC+ 육성사업으로 6개 학과(전공) 32개팀 등 총 76개팀이 참가했다. 출품된 작품은 혁신지원사업과 LINC+육성사업의 취지에 맞게 창의성과 전공 연관성, 작품 규모 및 난이도, 발전 가능성, 학생 기여도, 시장성 등을 종합해 현장 심사가 이뤄졌으며, 각 지원 사업별로 대상 1팀을 비롯해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5팀 등 11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총 22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다.

모의면접 및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모의면접경진대회와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진행되었다. 모의면접경진대회는 재학생들이 면접 경진대회를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자기개발 및 자발적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적 재능을 표출하도록 돕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우선 모의면접 경진대회는 1차 서류면접을 거친 학생들이 산업체 인사담당자가 면접자로 참여한 모의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1등 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해 학생들에게 도전의식과 동기를 부여하였다.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양식의 포트폴리오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심사위원들이 포트폴리오의 체계, 졸업 후 명확한 진로, 디자인 등의 창의성, 다양한 학습결과물과 전공과목 이수, 다양한 교외 활동 수행, 수상기록, 팀 활동의 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1등 30만원 포함 총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작품들은 나눔관 1층 잡카페에 전시하여 학생들과 포트폴리오 내용을 공유했다.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해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장려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우수상 3명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총 4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어학스피치 콘테스트 열려



국제협력교류센터는 지난 10월 28일 어학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어학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콘테스트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본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나의 인생관, 나의 버킷리스트, 우리대학에 입학한 이유, 우리대학의 좋은 점 등을 주제로 3분 동안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콘테스트 결과 각 부문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이 선정되었으며, 총 2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2020학년도 학생간부 동계연수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2020학년도 학생간부 연수가 대의원회, 학생장협의회 등 학생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학생간부로서의 원활한 학생 자치활동을 수행하고 학생간부로서 숙지해야 할 학사규정과 행정제도를 이해하며 상호간 친목도모와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한 취지의 연수로서 리더십·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강연, 새학기 학내발전을 위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2020년 학생자치위원회 윤강선(산업공학과, 1) 위원장은 “각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회 열려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학부모, 지역사회 등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2019학년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및 수요 조사 결과발표회가 지난 12월 24일

나눔관 지하1층 계단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CS/서비스 관리능력 향상(서비스매니저 자격증 취득) 과정 취득

지역공유 취·창업지원처는 CS/서비스 관리능력 향상(서비스매니저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객만족 및 고객가치제고를 위한 서비스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고객감동 서비스마인드 함양 및 서비스매니저 2(3)급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06명이 참여하여, 이중 10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도래상담자 양성프로그램 3기 수료식 진행

학생심리상담센터는 12월 3일 소외된 학생들에게 같은 또래가 접근해 상담을 해주는 도래상담자 양성프로그램 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1학기부터 16회에 걸쳐 상담자로서의 자세, 대화, 공감하는 방법 등을 배운 지원 학생들은 이번 수료식을 통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수료증을 지급받았으며, 다음 학기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며 활동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래 상담자는 이 기간 동안 고등학생 때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되어 대학에 와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0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부스 운영



우리대학교는 1월 2일부터 4일까지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0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업률, 학과의 진로선택, 합격요건에 대한 설명, 2020학년도 대입 과정에 대해 입시전문가의 1대1 컨설팅지도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대학교는 현장 원서접수 수험생에게 전형료 없이 진행하는 등 참여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했다.

재학생들을 위한 중간고사 간식이벤트 진행



작년 10월 23일 학생식당에서 간식꾸러미(햄버거-초코바-음료수 등)를 재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중간고사 및 취업준비에 지친 재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김현중 총장 및 대학 보직 교수들이 직접 간식꾸러미를 일일이 학생들에게 나눠줬으며, 행사 시작 30분 만에 600인분의 간식꾸러미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 재학생들을 위한 시험기간 간식이벤트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남북사랑학교 교사·학생 방문해 취업·진로 상담 진행



지난 11월 남북사랑학교 학생 27명과 교사 10명이 우리 대학교를 방문했다. 남북사랑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업공백과 이들의 취업과 진학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학교이다. 남북사랑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의 중졸, 고졸 검정고시 대비뿐만 아니라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진행한다. 후진학선도형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진로 및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은 유한대학교를 찾아 학교 현황과 유일한 박사의 나눔과 봉사에 대한 설명, 선배와 만남의 자리, 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 등을 견학했다.



제40회 유한문화상에 입상한 수상자들이 시상식에서 박은주(←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신문방송국 주간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40회 유한문화상

신문방송국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친 제40회 유한문화상의 수상작으로 총 6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유한문화상에 관심 가져 주신 재학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해당부문 당선작들을 학보 지면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진행 될 제41회 유한문화상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 부문

당선 : 아무것도 아닌 것 / 배지은(산업공학과, 1)
가작 : 배불뚝이 마트로시카 / 조희란(보건복지학과, 3)

수필 부문

당선 : 입동(立冬) / 강미혜(U-보건의료행정학과, 2)
가작 : 되찾은 노을 / 임하영(글로벌비즈니스학과 중국비즈니스전공, 1)

사진 부문

당선 : 세상에서 제일 큰 거울 / 이지호(보건복지학과, 3)
가작 : 기억 / 이예림(e-비즈니스학과, 2)

〈 시 부문 / 당선작 〉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소란스럽게 뛰고 있는 심장
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가족
얼굴 보기도 힘들어진 친구들
자신의 집에 들어가 곤히 잠든 우리 집 거북이
뭐 이런 것들
결국 이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불을 덮고
누운 새벽이 좀 더 짧게 느껴지곤 했다
알지도 못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더 이상 숨을 들이쉬는 것마저 버거울 때가 오면
조용히 뛰고 있는 가슴께에 손을 올려보거나
웃을 때마다 못 보던 주름살이 늘어 있는 가족
시시콜콜한 안부를 물어도 편안한 친구
조용히 나를 응시하는 거북이를 생각한다
대단히 특별하지도 않은 무언가들이
나를 채우고 있는 조각들임을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 아니다

배지은 (산업공학과, 1)

〈수/상/자/소/감〉

우선 유한문화상 시 부문 당선이라는 2020년 첫 행운을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취미로 시를 쓴지 몇 년이 되었는데 시를 대회에 출품하는 것은 처음이고, 이렇게 당선이 된 것도 처음인지라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살면서 스쳐 지나간 순간의 감정들이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 안에 그날의 감정이나 느낌을 담아 적기 시작한 게 이제 취미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취미생활일 뿐이지만 앞으로 계속 시를 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 시 부문 / 가작 〉

배불뚝이 마트로시카

조희란 (보건복지학과, 3)

배불뚝이 마트로시카는 늘 헛헛하다
그래서일까
꽃과 열매들의 장신구를 두르고 아가로 메워가는
마트로시카
숨어있는 아이들은 몇이나 될까

어머니의 상징 같은 저 마트로시카를 들여다보니
다산을 자랑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명주 수건으로 귀를 싸매고 포대기로
어린것을 업은 모습과
고무 다리아를 머리에 이고 연년생 동생을 품은
고단했을 어머니의 젊음을 본다

고만고만한 우리형제들은
어머니가 부르는 이름으로 서열이 바뀌던
그때가 생각난다

〈수/상/자/소/감〉

오랫동안 같았던 대학생활을 마치면서 유한문화상 수상 소식은 따뜻한 겨울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몸과 마음에 한줄기 햇살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늦은 학업으로 하지 못한, 가슴 언저리에 남아 있던 또 하나의 꿈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문득 생각하니 학교에서 강의실로 향하던 어느 봄날, 흥건한 흙냄새가 발길을 멈추게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돌아다보니 텅빈 속 군데군데 싹트는 초록 잎들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하늘은 그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불룩한 꽃봉오리가 생을 시작하려는 듯 보였고 여기서 마트로시카가 생각나 지금의 ‘배불뚝이 마트로시카’가 탄생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의미 있는 수상입니다. 잊지 않고 〈유한인〉을 새기며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졸업 후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수필 부문 / 당선작 〉

입동(立冬)

첫눈이 내렸다. 언제입을까 눈치만 보던 룬패딩은 단숨에 전 국민의 교복이 되었다. 곧 죽어도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만을 고집하던 저 여자는 슬그머니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양손에 움켜쥐고 채 온기를 느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차츰 자신만의 방식으로 겨울을 맞이한다. 그 방식은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이불을 싹 갈았다. 여름 이불은 침대 커버와 색이 맞아서 참 좋았는데 겨울 이불은 아니다. 일 년에 딱 두 번, 추석과 구정 때 할머니네서만 보고곤 과란 꽃무늬 이불. 마음의 소리를 다 숨기지 못한 채 투덜대며 여름 이불을 걷어내면 잠자코 내 청얼거림을 듣고 있던 엄마가 슬며시 다가왔다.

“그래도 이번 겨울은 따뜻하겠네.”

저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건어 놓은 여름 이불을 뒹잡아채어 빨래통에 내던졌다. 귀퀴한 냄새가 올라오는 이불은 그렇게 빨래통에 들어갔다.

저것은 여름 내 제 할 일을 다 했구나.

거실엔 덜커덜덜커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엄마와 나는 멀쩡까지 앉아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까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낚아 채간 것 때문인지 엄마의 얼굴이 좋지만은 않다. ‘띠링’ 세탁이 끝났다는 신호음이 울리자 엄마는 바로 세탁기 앞으로 갔다.

“엄마 내버려 뒀, 팔도 아프면서 이걸 어떻게 들게.”

잠시 그 앞에 가만히 서있던 엄마는 이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전 엄마는 집 앞에서 발을 헛디뎠다 맨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다. 엄마의 생일날 아빠가 사준 살짝 높은 힐이 화근이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왼쪽 팔이 부러졌다. 오른쪽 팔이 부러지지 않았음에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손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혼자 웃을 갈아입지 못했다. 혼자 머리를 감거나 목을 수 없었다. 음식을 만들지 못했다. 설거지와 빨래를 하지 못했다. 하다못해 물을 먹고 싶어도 물병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 그동안의 모든 집안일은 우리 가족의 몫이 되어 있었다.

나는 살면서 단한 엄마의 방문을 힐끔 보고서는 곧장 세탁실로 향했다. 엄마의 등으로 가려졌던 세탁실을 본 순간 기가 찼다. 팔이 다친 엄마의 부재로 인한 세탁실은 며칠째 치우지 못한 분리수거들로 점령을 당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을 지나친 음식물들은 질질 오줌을 싸며 세탁실을 자기들의 냄새로 가득 메웠다. 이 광경을 보니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올랐다.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지만 조금만 대충 하면 티가 팍팍 나는 것이 집안일이라던, 젊은 아줌마들이 카페에서 하던 말들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세탁실 청소를 하고 이불을 널었더니 허리가 아프다. 평소엔 안하던 일을 해서 그런가 여기저기 안 쏘시는 곳이 없다. 할머니처럼 허리에 손을 터억 집고 나 좀 봐달라는 포즈를 취한 채 엄마 방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드르릉, 드르르릉”

뭐가 그리 피곤했는지 엄마는 코까지 골면서 곤히 잠에 빠져있었다. 괜히 자랑스러웠던 마음은 이내 숨겨지고 엄마가 덮고 있는 이불이 눈에 밟혔다. 그리고 보니 엄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몇 년이고 저 이불뿐이었다. 작년 여름 딱딱한 방바닥이 싫어 며칠을 애걸복걸하여 새침대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침대를 바꿨으니 침대커버와 이불도 사야 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새로운 분홍 이불이 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엄마는 방바닥과 이불 하나였다.

그에 반해 우리 아빠는 조금 달랐다. 언젠가는 찬 방바닥이 싫다고 전기장판을 사들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 엄마는 물었다. “하나야?” 그제서야 아빠는 평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는 동문서답을 늘어놓았다. 엄마는 대답했다. “잘했어.”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엄마 것도 하나 사. 아빠, 엄마도 집안일하느라 허리 아프대” 이러한 말을 해줄 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매년 추운 겨울을 보냈다, 우리 엄마는.

밤이 찾아왔다. 뭐가 그리 부끄러웠는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해가 들어갔다. 그리고 한 사람씩 집에 들어왔다. 우리 집 삼촌, 고3 여동생이 먼저 들어왔다. 엄마는 동생이 오자마자 국부터 데웠다.

“아고 우리 새끼 얼른 씻고 와. 밥 먹자, 오늘 학교에서는 무슨 일 없었니?”

“어-”

대답인 듯 대답 아닌 저 추임새를 듣고도 엄마는 익숙한 듯 묵묵히 국을 데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도 집에 들어왔다.

“나왔어”

“오빠 왔어? 얼른 씻고 와. 다같이 밥 먹게.”

우리 엄마는 아빠에게 ‘자기, 여보, 당신, 애들 아빠’라는 애엄마가 애 아빠를 부를 때 흔히 쓰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이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한번에 녹이는 말, 오빠. 어찌면 우리 엄마는 그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게 아니었을까.

저녁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엄마가 입을 열었다. 김장에 관한 것이었다. 내일은 할머니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손이 다친 엄마를 위해 대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아빠는 회사를 가야 하고 동생은 물어볼 것도 없는 고3, 대상은 나왔다. 나는 흔쾌히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강미혜 (U-보건의료행정학과, 2)

요리에 관심이 있는 나로서는 할머니의 김장 레시피를 바로 옆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제는 밥을 다 먹은 후에 시작됐다. 설거지를 누가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일제히 나열했다.

“난 오늘 아침부터 세탁실 청소하고 이불빨래 했어, 그리고 내일 김장도 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선수를 쳤다. 다음은 아빠였다.

“아빠는 허리가 아파서 설거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은 막내가 하는 걸로 하자.”

동생의 눈썹이 움찔했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빈 접시를 벽 벽 긁고 있었고 아빠는 동생 눈치를 살폈다.

“난 안돼, 학원 숙제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공부도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본단 말이야. 언니가 좀 하면 안 돼? 언니는 지금 해야 될 것도 없잖아.”

동생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벽 벽 긁고 있던 빈 접시를 요란하게 내려놓고는 싱크대로 향했다.

“고만해 다들, 내가 넘어진 게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내가 할 테니까 다들 들어가서 할 일해.”

허리가 아픈 아빠의 할 일은 전기장판에서 몸을 지지기, 예민한 대한민국 고3 수험생의 할 일은 공부하기, 오늘 집안일을 도운 나의 할 일은 쉬기, 그리고 팔이 부러진 엄마의 할 일은 설거지였다. 그 누구도 빈 그릇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밥을 다 먹으면 그냥 일어났다. 자연스레 티비 앞에 앉아 피곤함을 털어냈다. 언제나 남아있는 건 빈 그릇과 엄마였다.

한 손으로 힘겹게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엄마를 우리 셋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지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빠가 일어났다. 말없이 고무장갑을 들어 자기 손에 끼웠다. 나와 동생은 빈 그릇을 치웠다. 엄마는 다시 식탁으로 와 의자에 앉았다.

엄마가 한 손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눈치 받는 일이 되었다. 음식을 만들지 못한 것, 설거지와 빨래를 하지 못한 것, 하다못해 물을 먹고 싶어도 물병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 결국 그동안의 모든 집안일은 우리 가족의 몫이 되었다는 것들이 엄마는 우리에게 미안해야 했었고 눈치를 봐야 했다.

이내 엄마가 울었다. 설거지의 물소리 보다 크게 울었다. 동생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아빠는 물소리를 더 크게 틀었다. 엄마의 울음도 덩달아 더 커졌다. 그동안 우리는 엄마의 수고를 외면하고 있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엄마는 겨울에도 추웠고 아파

도 일을 해야 했었다. 밖에서도 아닌 집 안에서, 주말도 공휴일도 없는 이곳에서 말이다.

엄마가 팔이 부러진 지금, 우리는 겨우 조금 알아냈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이상 엄마에게 엄마스러움을 바라지 않겠다고. 그날, 엄마에게 울음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엄마는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울었다는 것. 엉엉 우는 엄마의 모습을 두 눈으로 바라본 소중한 날이었다.

다음날 아빠는 한 손에 전기장판을 사들고 집에 왔고 엄마는 질문하

지 않았다. 우리는 서툴지만 단단히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매년 찾아오던 겨울을 유난히 시리게 보냈을 우리 엄마에게 이젠 겨울을 포근함을 전달해드리고 싶다. 나의 작은 서사글로부터.

〈수/상/자/소/감〉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 갈 때 수필을 쓰기 시작해서 겨울의 절정에 와있는 지금,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수상 소감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씻고 잠들면 다시 아침이 오는 따분하고 삭막한 회색빛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글을 쓸 때에는 이 속에서 햇빛을 발견할 수 있었고 쌀알의 감사함을 배웠으며 꿈속에서 꿈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입동(立冬)’은 이러한 글입니다. 포근함은 추운 날, 추운 곳에 서려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유한인의 마음에 포근함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필 부문 / 가작

되찾은 노을

……. 띠리리링 띠리리링…….

오늘도 머리맡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 더듬더듬 찾아 끄다. 친구들과 동기들이 보내 놓았을 카카오톡을 눈도 덜 뜬 채로 확인 후 어슬렁어슬렁 학교 갈 채비를 하며 날씨 어플로 밖의 날씨와 온도를 본다, 버스 어플로는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체크한 후에 언제나 그렇듯 같은 버스에 승차한다. 털썩 앉은 버스 시트 위로 보풀이 흩날린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와 기사가 있을지 네이버 기사들을 뒤적거려본다. 한껏 우울해진 현실을 마주한 후에는 이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웹툰을 보다가 어제 못다 마친 과제를 파일 어플로 열어 확인한다. ‘휴우 다음 주까지네, 아, 그때 소영인 여행 간다던데’ 페이스북 어플을 열어 친구들의 소식을 손가락으로 스스욱 내린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언제쯤 이런 데 가보려나.’ 시들시들 우울해지려는 내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아 주말에 남자 친구와 다녀왔던 예쁜 카페 사진들을 업로드할 때 즈음 이면 버스는 역에 도착해 있다.

허겁지겁 버스카드를 찢고 지하철에 탑승하니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듯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을 보고 있었다. 나도 이어폰을 꺼내어 귀에 꽂아본다. 외부의 시끄럽던 잡음이 차단되어 마치 내 방 같다. “카톡!” 이 시간 즈음엔 나를 재촉하는 동기의 카톡이겠지, 토도독 도도도독 시답지 않은 말들로 빨라지는 내 타자 소리와 맞물려 도착한 학교, 복잡한 후로 가장 새롭게 느껴졌던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석을 찍고 서둘러 수업 준비를 한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평범했던 이 날로부터 시작된다. 길고 긴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식을 먹으러 내려가는 중에 강의실로 급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 사이에 끼었던 나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내 소중한 휴대폰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3초간의 정적 후

“악 안 돼!!”

하고 서둘러 주운 휴대폰은 행여나 금이라도 갔을까 하는 내 걱정을 비롯기라도 하듯 이미 산산조각이 나있었고 부서져버린 액정과 함께 내 마음도 부서져 내려버렸다. 나와 부딪힌 그 무리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누군가를 탓하기엔 내 손에 들려있었던 휴대폰이, 또 내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전원을 켜는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봐도 기절한 듯

조용한 내 휴대폰은 내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 잠시 깜빡였다가 다시 매가리 없이 검은 화면만이 나를 비쳤다.

오후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습관처럼 확인한 내 휴대폰은 만신창이, “하아…….”

하고 깊은 한숨만이 나왔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은 유튜브를 보며 깔깔댔다. 나도 휴대폰과 함께였다면 금세 도착했을 집이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연휴의 귀성길처럼 길게 느껴졌다.

갑작스레 고장 난 휴대폰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 잔뜩 심통 난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던 중, 해가 사라지기 직전의 유난히 따듯한 햇빛이 위로라도 하듯 나를 환하게 비추었다. 망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였더라.. 내가 좋아하던 풍경마저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언제부터였더라?...’ 요즘의 나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세상 안에 갇혀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내 손에 꼭꼭 쥐어진 부서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나는 고개를 떨쳐뜨렸다.

노을 지으며 해가 저 너머로 사라질 때서야 내 마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래, 이 작은 화면에서 벗어나 내 진짜 행복을 찾아보자.”

결심하자 비로소 천천히 주변의 것들, 또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운동복 차림의 여자, 목도리로 목을 품공 싸매고 여동생과 놀아주는 일곱 살 남짓 꼬마들과 얼마 만에 올라다보는지 모르는 높고 파란 하늘 그리고 언제 익었는지도 모르는 알록달록 단풍과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들까지, 한참 바라보니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느꼈다.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생각들을 한 탓인지 머리가 멍하게 아파왔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 기분 좋은 생각들을 멈출 수 없었다. 휴대폰 안에 있는 작은 세상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관심사였지만 최대의 고민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느꼈던 변화는 가족들과 눈을 맞추며 나누는 인사였다. 늘 휴대폰만 보며 건조하게 지

임하영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중국비즈니스전공, 1)

나갔던 저녁식사도 대화가 오가며 가족들과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내가 그리던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타인들의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내 모습뿐이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또한 SNS와 메신저로 대체되어있는 현재가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삶과 내가 찾는 행복은 무엇일까?

아! 오늘은 여전히 휴대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동생과 오랜만에 카페나 가야겠다. “하빈아, 바람 쐬러 가자” 처음엔 침대에 누워 시큰둥했던 동생도 못 이기는 척 나갈 채비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집 앞 카페에 앉아 동생의 연애 고민이나 학교생활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집 앞 공원을 어릴 때처럼 자전거로 내달리며 평소엔 누릴 수 없었던 즐거움을 만끽했다. 알 수 없지만 나와 내 동생은 분명 이 시간이 행복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 덕분인지, 때문인지 편리하지만 소소한 행복들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요즘처럼 일몰시간까지도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이때에 나에게 휴대폰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해 질 녘 서쪽하늘을 다시 올려보게 하였고, 따스한 노을이 차디찬 저녁 하늘을 감싸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였다. 나는 아직 알 수 없는 파랑새 같은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니 여러분도 그 작디작은 화면에서 빠져나와 끝없이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작은 행복을 찾아나가길 희망한다.

〈수/상/자/소/감〉

제가 유한문화상 수필부문에서 처음 써보게 된 수필이 가작으로 당선되어 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책을 읽기를 좋아하지만 직접 글을 써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기회와 계기를 통해서 제 첫 작품을 쓰게 되어 너무 보람차고 또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더 뜻 깊은 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 학 / 부 / 문 / 심 / 사 / 평

류인재 (문학박사, 시인)

도시에서 자라난 영상 세대는 갈수록 문학 작품을 외면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신문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유한 문화상 문학 부문에 학생들이 많은 글을 응모하니 기쁘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에게 상을 주고 싶지만, 각 장르 별 창작 방법에 맞고 감동적인 글을 골라 내야 글쓴이나 독자에게 좋은 글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기억할 수 있다.

시 부문 당선작 「아무것도 아닌 것」은 얼핏 보면 낯설리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흔치않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뒤 “심장”, “가족”, “친구들”, “거북이”를 통해 시적 발상이 점차 확장되고 의미화된다. 뛰고 있는 심장,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가족,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진 친구들, 자기 집에 들어가 곤히 잠들어버린 거북이. 그들이 있지만 화자는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한 채 “이불을 덮고” 추위를 탄다. 소외감 때문이라. 그러나 건강한 화자의 생각은 계속 움직인다. “가슴께에 손을 올려”보았으니 분명히 심장이 뛰는 감각을 느꼈으리라. 웃는 가족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난 것도 발견한다. 바쁜 친구에게 “시시콜콜한 안부를 물어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조용히 자는 듯이 보였던 거북이도 자세히 보니 화자를 “응시”하고 있다. 결국 그것들이 모두 화자 자신을 채우는 생의 “조각”임을 깨닫는다.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을 뛰어넘어 만물 합일의 경지의 체험했

다고 본다. 가작인 「배불뚝이 마트로시카」의 화자는 배불뚝이 마트로시카와 어머니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연년생 자식을 얻고 안은 젊을 적 어머니의 고단함을 떠올린다. 그러나 시적 상상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해 아쉽다.

수필 당선작 「입동(立冬)」에서는 진솔하고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엄마가 발을 헛디려 왼팔이 부러지면서 집안일을 못 하게 되자 가족들이 가사의 부담감을 느낀다. 모든 가정에서 있을 법한 일인데 심리 묘사까지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다. 그 우왕좌왕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지고 건강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엄마가 팔이 부러지고 나서야 글쓴이는 깨달았다. 엄마는 그동안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고 아파도 일을 해야 했었다. 더 이상 엄마에게 “엄마스러움”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엄마”의 모습을 오버랩시킨다. 사건의 시작부터 과정을 풀어나가는 필력과 임팩트 있는 끝마무리 등이 좋다.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도 진솔하고 감동적이다. 가작 「되찾은 노을」은 휴대폰을 바닥에 놓쳐 망가진 날 그 작은 화면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이다. 매일 휴대폰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비로소 주변의 것들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과 사람과 가족들의 눈인사 등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되어 참 행복을 느꼈다는 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런데 소설 작품은 모두 구성력이 약하고 주제가 모호하니 좀 더 숙련과정을 거쳐야겠다.

임상작들을 축하하며, 내년에도 좋은 글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 / 진 / 부 / 문 / 심 / 사 / 평

박정노 (포토그래퍼)

이번 심사는 심사평을 하기 전에 공모한 모든 학생에게 가작을 수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다. 출품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테크닉, 주제선정, 사진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야기를 만들어 표현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더욱 발전해나가는 작품을 보며 앞으로의 공모전이 기대 되어 진다.

좋은 사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의 풍경에서 시작된다. 좋은 사진을 찍겠다고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땠이었을 때 그 마음을 담아 표현된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여기에 이미지 구성, 스토리텔링, 테크닉이 뒷받침 되었을 때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특징은 각자 본인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으로서 출품자의 이름과 사진밖에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사색, 관찰, 평가, 정직, 순수, 자유 이 단어 속에 출품자와 어울리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시선을 찍은 사진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이 읽혔다는 것은 좋은 사진을 찍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당선자의 유무를 떠나 모두가 좋은 사진가이다.

이번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지호 학생의 〈세상에서 제일 큰 겨울〉작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진

을 통해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읽어 낼 수 있다.

작가는 광활한 자연 속에 속한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자이를 느꼈을지 궁금하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일들로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지호 학생의 작품을 보고 있다면 그 많은 일들이 우습게 느껴질 만큼 허무하다 못해 편안함과 자유로움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듯하다. 외부의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 모습이 진정한 작가의 모습처럼 보인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성과를 안겨준 사진이다.

가작으로 선정된 이예림 학생의 〈기억〉작품은 지나치게 쉬운 풍경속의 한 부분을 포착해냈다. 역지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눈이 가고 평온한 느낌은 보는 이에게도 전달되어진다. 아이가 주인공이라면 앵글 가운데 놓고 촬영할 수도 있었겠지만 뒤로 더 많은 풍경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편안한 느낌을 살리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갈 수 있는 여백의 미를 만들어 주었다. 작가의 시선에서 흐릿한 미소가 느껴지기도 한다. 언젠가 나에게 있었던 시간의 풍경을 포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시간을 기록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한다. 기억하지 못할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이 감동과 여운으로 남는 사진이다.

다음 호 안내

다음 291호는 3월 9일(월)에 나을 예정입니다.

〈 사진 부문 / 당선작 〉

세상에서 제일 큰 거울

이지호 (보건복지학과, 3)



〈수/상/자/소/감〉

저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사진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큰 매력을 느꼈 습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은 저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선물을 주 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악이 될 수 도 있고 그림이 될 수 도 있지만 저는 순간순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가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 든 못 나왔든 그 사진을 보면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 순 간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최대한 많은 사진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유한 문화상 공모전 에 작품을 제출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여행사진을 볼 수 있었고 추억을 회상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공모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안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사진 부문 / 가작 〉

기억

이예림 (e-비즈니스학과, 2)



〈수/상/자/소/감〉

안녕하세요. e-비즈니스학과 17 학번 이예림입니다. 사진은 고양시 꽃 축제에 할머니 사진을 찍어드리 러 갔다가 우연히 아이가 홀로 떨어 져 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촬영한 것 인데, 처음 본 그 느낌이 잘 담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진 입니다. 그런 사진이 수상을 하게 되 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기취 업을 하게 되어서 현재 학교에 나가 지는 않지만, 상을 받고 생각 해 보니 학교에서 좋은 추억들만 만들었던 것 같아서 친구들과 교수님이 보고 싶네 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 니다!

PBL 기반 학습법으로 공부능률과 성적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어요!



PBL 학습법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 대표 고다빈(아동보육학과, 1) 학생

Q PBL에 대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PBL 학습법이란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습법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 학업에 적용중인 학 습법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 한 학습법은 저와 저희 팀원들도 실제로 사용 중 입니다.

Q 이번 대회 참여 자격 요건이 직전학기까지 의 전체평점 4.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씀하신대로 이번 수상이 높은 성적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 하시나요?

A 평소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정보 를 나누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파일로 정리해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숙지했습니다.

Q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경진대회 대상 수상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번 대회는 경진대회에 대한 경험도 쌓고 친 구들과 우정도 더욱 돈독해질 것 같아 도전하게 되 었습니다.

저희 팀은 계기, 과정, 결과 순으로 프로젝트를 준 비했습니다. 이런 체계성이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어 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 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습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저희 팀은 두 가지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

지난 11월 교내에서 주최한 PBL 학습법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PBL 학습법 경진대회는 학업 우수자의 PBL 학습성과 공유를 통한 재학생 학습 동 기부여 및 면학분위기 형성과, 다양한 학습전략 및 경험 소개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학습방법 공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유한대학보는 이번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 대표인 고다빈(아동보육학과, 1) 학생을 만나 그들의 학습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는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터디 그룹 을 진행하며 생각해낸 학습법은 학생들이 직접 교사 가 되어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게임에 학습적인 내용을 담아 즐기며 공부 하는 방법입니다.

Q 또 다른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A 두 번째 PBL 교내 프로젝트는 아동보육학과 인 저희 팀의 특수아동교육 교과목을 참고하여 착안 한 방법입니다. A와 B로 팀을 나누어 A팀은 장애인 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 B팀은 한 명의 친구가 직 접 장애인 역할을 맡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연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어떤 반응 을 보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Q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얻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A 우선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표능력이 향상된 것 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 제 발표할 때에는 한층 여유를 갖고 심사위원들에게 저희의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 구들과 대회를 함께 준비하며 다양한 의견교류와 소 통을 하면서 팀플레이와 협업 능력도 좋아진 것 같 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준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도 신장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A 학업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와 강 연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며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 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사진·글 : 송에스터 기자〉

향수 공방에서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자
121 르말뒤페이(121 LE MAL DU PAYS)



‘향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이 다.’ - 소설 ‘향수’ 中

서울시 마포구, 합정역과 상수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골목의 작은 공방에서 풍부한 향기가 풍긴다. 현관 계단을 올라가면 복층 구조의 아늑한 내부가 펼쳐진다. 이곳이 향을 다루는 가게라는 것 을 알리듯이 향초와 염료, 향수병으로 구석구석 세심하게 꾸며져 있다. 좁은 내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로 공방은 북적인다.

121 르말뒤페이는 향수 공방이다. 초보자라도 쉽고 재미있게 향 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두고 있다. 170여 가 지에 이르는 향 가운데에서 원하는 향을 고르면 조향사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금세 나만의 향수가 완성된다.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 50ml의 액체 향수만 만들 수 있으나, 미리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 하면 고체향수와 핸드크림, 입욕제와 바디크림을 만드는 프로그램 도 즐길 수 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의 언론에도 소개되어 외국인 손님이 부쩍 늘 어난 121 르말뒤페이는 단연 홍대 거리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릴 만 하다. 원한다면 향수에 가족 각인 라벨을 붙이거나 좋아하는 향들 을 블렌딩 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커스텀이 이 공방의 인기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방문 전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SNS 계정에서 이 공방만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추운 겨울, 포근한 향에 휩싸여 힐 링을 느끼고 싶다면 단연 추천할 장소이다.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3길 40.

월요일 정기 휴무. 02-6368-0121.

〈송에스터 기자〉

유한이

취업준비는 잡카페에서!

〈배소운, 애니메이션학과 2〉

